이 문서는 크툴루의 부름 7판에 대응하는 2차 창작 시나리오 중 하나인 어퍼테일에 등장하는 주 무대인 작은 마을,

쉬버타운 내에 존재하는 크고작은 파벌 혹은 세력들을 알기 쉽도록 목록화하고 정리한 문서입니다.

I. 주 등장 세력

1. 지역유지 두둔 세력

2. 흰 얼굴의 신 교단

3. 마을 내 소수 온건중립파

4. 외부지원으로 파견된 경찰/소방인력들

5. 뱀 교단

6. 검은 눈

7. 급진주의적 사고를 지닌 시민들

8.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자경단 무리

II. 각 세력들의 기원과 동향

1. 지역유지 두둔 세력 :

지역유지(=국회의원이나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유명한 인물을 뜻함.)이자

마을의 지주인 베나로나를 지지하고 그와 뜻을 같이하려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지역유지와 일을 같이 해온 공무직원이나 상호관계에 놓인 지역상인등

다양한 직군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극성인 실종사건에 대하여 토픽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 흰 얼굴 교단(백면교) :

"간절히 원하면,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교리가 특징인 토종 종교입니다.

사이비 박멸 운동을 통해 대부분의 교리나 가르침은 소실되고 대부분이 기독교에 흡수되었습니다.

근 10년간 교인이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3. 마을 내의 소수 온건중립파 :

그 어떤 소문과 낭보에도 특별히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은 마을의 인원입니다.

백면교를 믿고 실종된 사람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 하는 중입니다.

4. 외부지원파견된 경찰/소방인력 :

최근 산악인이 실종되었다 하반신만 남긴채 발견된 살인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외부 경찰소방력 지원요청을 통해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살인사건과는 별개로 빈번히 일어나는 실종사건보고가 인력의 운용제한을 일으켜

운용부대인력의 증원 및 재편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물러난 다음엔 언제 다시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5. 뱀 교단(신봉자들) :

"진실은 드러나는 법, 땅에 묻는다 한들 뱀의 아가리 속이로다." 라는 교리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신봉자들입니다.

딱히 드러내는 교명도 없고 최소한의 포교활동마저도 없는 탓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목적을 지녔는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자신이 뱀인 것 처럼 행동을 유도하고 다닌다는 것 뿐입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엔 뱀이 물어뜯은 듯한 자국만 남고 모든 것이 파헤쳐져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처럼.

6. 검은 눈 :

이 마을의 뒷골목을 쏘다니는 소규모 갱단의 심볼입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ABBA이지만 누구도 관심을 주지않아 심볼의 모양과 형태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리의 대장 하나와 그의 동생들 셋이 이 모임의 주축입니다.

7. 급진적인 사고를 지닌 시민들 :

근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지역유지에게 불만을 담아 터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마을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8.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자경단 무리 :

적지않은 실종자들 중엔, 이들의 친구들도 섞여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행동력은 다른 어느 어른들 보다 앞서 무리를 조직해 실종자들,

친구들을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백면교의 신을 믿으면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들 알고있을겁니다.